

## 양면

건물에서의 양면은 건물의 모서리를 중앙에 놓고 바라본 건물의 부분이며 구조적인 균형을 이루는 건물의 두 외벽이 만드는 볼록한 입방체이다.

사진에서 보여지는 양면은 한 평면에 의하여 좌우로 똑같이 나누어 지는 평면이다. 건물외관 구조는 사진에서 수직선과 직선으로 이미지화 되고 수직선과 직선이 만드는 각들이 화면의 중심선을 경계로 좌우대칭(bilateral symmetry)을 이룬다.

회화로부터의 양면은 명암과 색채의 대비, 붓질, 물감질감들의 차이가 좌우의 대칭적 균형감을 와해시키고 비대칭적으로 변화한 좌우관계에서 균제(balance and symmetry)를 다시 구축해보는 작업의 대상이다.

공간으로서의 양면은 실재하는 공간과 비실재하지만 인지할 수 있는 공간 사이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공간각(space perception)의 균제를 구축해보는 작업의 대상이다.

## Invention

변주가 어떤 주제를 바탕으로, 선율, 리듬, 화성들 여러가지로 변형하여 연주하는 형식인 것처럼 근대건물의 외관을 면들로 쪼개어 그려 왔던 나의 회화작업은 건물의 반복되는 구조가 주제가 되어 그 면들을 끊임없이 변주하는 방식으로 구성해나가는 작업을 하였던 것 같다.

이번 invention 작업은 양면이라는 관계를 통하여 드러낼 수 있는 공간적인 균제 감각에 대한 상상력으로부터 시작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벽과 벽이 만나 천장과 바닥을 연결하는 공간적인 관계성이 두드러지는 모퉁이를 설치 장소로 선택한 이유도 있지만, 반복되는 네 개의 모퉁이는 변주하는 구성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공간 조건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설치 장소로 선택하였다.

모퉁이에서 만나는 두 벽면들에 한 쪽은 목탄이나 흑연 가루, 페인트로 사각형 벽화를 제작하였고 다른 한 쪽에는 은반사 필름 안쪽으로 흐릿하게 보여지는 사각형의 벽화들을 제작하여 두 개의 다른 벽화가 모퉁이를 중심축으로 하여 대칭을 이루게 설치하였다. 두 개의 벽화는 모퉁이에서 은반사 필름을 통하여 서로를 다시 대칭적으로 반사하고 투과시키면서 확장되어 또 다른 두 개의 가상적인 사각형 벽화들을 만든다. 결국 모퉁이에는 4 개의 사각형 벽화가 만들어지고 이 벽화들은 보는 위치에 따라 대칭을 이루거나 비대칭을 이룬다. 거의 전시공간의 모든 벽면에 설치된 은반사 필름의 재료적 특성은 모퉁이라는 공간적 조건에서 천장과 벽, 바닥과 벽의 경계를 반사, 투과, 확장시켜 대칭적인 가상의 공간적 경계를 만든다.

전시 공간의 네 모퉁이마다 설치된 벽화들은 일정한 비례로 커지거나 작아지면서 공간에서 시각적인 울동감을 만든다.

가상의 사각형 벽화와 공간적 경계들은 실재하지 않지만 공간각(Space perception)으로 인지되며, 실재와 비실재하는 공간 사이의 균제를 구축하고 벽화의 크기와 재질의 차이, 모퉁이의 각도에 따라 전시 공간의 네 모퉁이에서 변주한다.

공간각이란 공간의 상태나 관계에 관한 지각 또는 지각 능력으로 청각, 시각, 촉각 등의 공동 작용으로 느낄 수 있으며, 전후, 상하, 방향, 대소, 위치, 거리, 형상 등의 여러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 즉 주체자가 공간을 지각하는 감각인데 전시 공간에서의 주체자는 관람객이 된다.

전시 공간에 설치된 은반사 필름에 비춰지는 관람객 자신의 모습은 관람객들 스스로에게 모퉁이에 설치된 벽화들의 상호작용이 만드는 공간을 인식하는 개인적인 기준이 될 것이다. 관람객들마다 어떻게 체험할 지는 알 수 없겠지만 설치되어진 공간으로서의 양면들은 관람객들의 개인적인 감각이 투영되면서 또 다른 균제로 인지되어 질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이번 작업에서 시도해 보는 invention 중 하나이다.